100% 불교소재 게임 '탄노피'가 온다

탄(誕)-태어남+노피(높이)

적경스님 쓰고, 세이생명과학시스템이 제작
진리체험, 인간의 순수한 사랑·지혜 심어줘
세계시장 겨냥, 불자 투자 유치로 완성계획

폭력 살생이 없는 게임

부모들은 재미있으면서 유익한 게임은 왜 없느냐고 묻는다. 그 안타까운 물음에 대한 답이 '탄노피-탄이의 불교여행'이다. 적경스님(봉인사 주지)의 시나리오를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이 디지털 동영상 게임으로 제작하고 있는 이 게임은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를 차근차근 배우면서 세상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체험해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탄노피'는 "폭력과 살생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거운 게임이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

'탄노피'는 무슨 뜻일까? 주인공의 이름은 태어남을 뜻하는 '탄(誕)'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우친다. 사람의 의식 세계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새롭게 태어남이 바로 이 게임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이 '탄'이다. 주인공 '탄'이가 펼치는 모험을 줄거리로 이어지기에 '높이'라는 우리말을 붙여 게임의 이름을 '탄노피'로 정했다. '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더 높은 정신과 더 높은 안목, 더 높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게임은 폭력과 살생을 거부하고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서로 나누어 갖는 지혜를 심어주는 여행으로 짜여져 있다.

깨침으로 가는 길 3단계 구성

첫 단계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검도를 수련하는 탄이와 함께 많은 성인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생로병사에 대한 비밀을 풀어 가는 여행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고 얻은 검으로 마왕들을 물리친 탄이가 신비의 여인 '마등가'와 만나고 엄청난 시련을 겪은 끝에 '6바라밀 구슬'을 얻는 과정이다. 물론 게임을 하면서 탄이의 시련에 동참해야 하고 그 시련을 다 겪고 나면 '6바라밀 구슬'을 얻어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세 번째 단계는 '생로병사 검'과 '6바라밀 구슬'을 갖춘 탄이와 함께 한 차원 높은 '무심의 검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검법을 가르치는 스승은 탄이 아버지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무심 검법'의 힘으로 세상의 악을 평정한 뒤 자비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중독되어도 좋은 게임

'탄노피'는 중독증이 없는 게임이다. 아니, 중독 되어도 좋을 게임이다. 자비와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비대해져 가고 게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이면에서는 정서불안과 의식의 피폐라는 독소에 젖어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탄노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단계 한 단계 체험하면서 배우는 여행이므로 정서의 안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스님이 10년 동안 구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게임이라는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체험시키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이 게임을 구상한 것이다. 거기에 불자 CEO 조영훈 세이생명과학시스템 대표가 오랜 디지털 영상 기술 기반을 제공해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

불자들의 투자로 완성하려는 게임

현재 '탄노피'는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완성된 상태다. 주인공 탄이와 여러 존자들, 스님과 악의 상징인 악마들을 비롯한 20여 인물에 대한 캐릭터가 완성됐으며 적경스님의 시나리오도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저작권 등록을 비롯한 개발 준비 업무도 마친 상태다. 진리를 향한 탄이의 모험 여행도 단계별로 제작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적경스님과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불자들의 정성과 힘을 모아 '탄노피'를 세상에 내 놓자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선보일 순수 불교에니메이션 게임을 뜻있는 불자들의 공동 투자로 완성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편의 영화가 소액투자 유치를 통해 제작되어 성공한 사례를 이 게임 개발에 적용하자는 의도다. 한국의 불자들이 힘을 모아 '탄노피'를 완성한다면 세계의 게임 시장에서도 훨씬 주목할 것이고 한국 불교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을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겨냥하는 대작

'탄노피'는 한국에서 탄생해 세계의 게임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자 하는 의욕으로 제작되고 있다. 폭력과 살생으로 일관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임으로 세계의 게임시장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한글 버전을 개발하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버전도 함께 제작해 전 세계 게임 시장에 함께 내놓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탄노피' 제작에 투자 하세요

투자안내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최초 순수 불교게임 '탄노피-탄이의 불교여행'은 폭력과 살생이 판치는 게임 시장에 신선한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게임 시장은 매년 30% 이상씩 확대되고 있으며 게임을 즐기는 인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노피'는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내용과 형식으로 세계의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낼 것입니다. 이 도전장에 불자님과 불자기업인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에는 안정적인 수익과 전법의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1구좌당 10만원씩 투자 하실수 있으며
1인 300구좌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구좌 투자시 별도의 약정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투자자에게는 게임 발매 시 완성품 게임 1개를 드리며 판매 수익에 따른 이익금이 배당됩니다.

●사찰이 50구좌 이상 투자할 경우 사찰 이름과 전경이 동영상과 게임의 배경으로 제작되어 전세계 어린이들이 보고 즐기게 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성함과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덕담'을 게임 원본 타이틀에 삽입해 영구 보존토록 합니다.

●투자 문의
봉인사 031-574-5585 (적경스님)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 02-782-5750
www.tannopy.com

봉인사
세이생명과학시스템(株)

인터뷰

시나리오 쓴 - 적경스님
제작 지휘 - 조영훈 사장

"흥미가 관건…한번 동참하면 빠져들게 돼"
"게임 시장에 자비 메시지 전하는 것이 핵심"

'탄노피'는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스님의 시나리오와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의 조영훈 사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적경스님은 컴퓨터 게임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10년 전부터 이 게임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적경스님에게 있어 '탄노피'는 10년간의 화두인 셈이다.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서울 법련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고 <어린이 불교성전>도 펴냈던 적경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기는 모든 게임이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가르침을 적용한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시나리오 개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싸움, 폭력이 없는 게임이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적경스님은 단호하다. "게임의 기본요소가 폭력과 살생으로 점철되는 전쟁인 것은 나닙니다. 흥미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우는 즐거움이 필요하고 그 즐거움을 단계별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탄이의 모험 여행은 진리를 찾아가는 숨 가쁜 여행이어서 누구나 한번 동참하면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세이생명과학시스템의 조영훈 사장도 "탄이와 함께 진리의 단계를 높여 가는 즐거움은 죽이고 부수는 기존의 게임이 주는 엽기적인 면들과는 훨씬 다른 흥미를 줄 것"이라며 "이 게임의 목적 가운데는 폭력 일변도인 세계의 게임시장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적경스님과 조영훈 사장은 "탄노피는 곧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법보시가 될 것이므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는 정성으로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며 "불자와 기업인들이 게임 시장의 평화운동에 동참해 주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